

[hdhstudy.com/1965/14-327-%eb%af%bc%ec%a1%b1%ec%a0%81%ec%9d%b8-%ec%8b%9c%eb%a0%a8%ec%9d%84-%eb%](#)

 $\frac{1}{2}$

책임진 입장에서는 기쁨과 설움과 화를 마음대로 나타낼 수 없다. 시시한 것은 잘라 버리고 보다 큰 것을 중시하여 관계 맺어야 한다.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. 슬퍼도 저주해서는 안 된다.

우리에게는 가야 할 길이 남아 있다. 그렇기에 모든 것을 빨리 교체할수록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. 이번에 다짐해야 할 것은 더 큰 시험에 승리할 수 있도록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승리의 조건을 갖추는 것이다.

한국의 젊은이들을 어떻게 해야 세계 무대에서 눈물과 피땀을 흘리는 청년으로 만들 것인가? 일본에 가서도 전국을 순회해야 한다. 일본의 그 누구보다도 애국했다는 조건을 세워야 한다. 혼자서는 일할 수 없다. 진심으로 같이 갈 수 있는 동지를 사방에 갖춰야 한다. 식구를 붙들고 눈물을 흘려야 한다. 사위기대가 원칙이다.

나무는 가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시련을 겪는다. 협회장이나 지구장이 책임을 못 하더라도 일선 식구 한 사람 만이라도 살아 있으면 된다. 나뭇가지 끝에 한 잎이라도 살아 있으면 그 나무는 살아 있는 것이 된다. 살아 있으면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어 있다.

생명이 있는 곳에는 투쟁이 있다. 자기 마음에 먼저 천국을 이루어야 한다. *

© 2013 - 2014 hdhstudy.com | [Contact Us](#)

- [RSS](#)